

‘人稱代詞+來+V(P)’의 의미기능

金株希*

< 목 차 >

1. 들어가는 글
2. 연구범위
3. ‘人稱代詞+來+V(P)’의 의미기능
 - 3.1 ‘我+來+V(P)’
 - 3.2 ‘我們+來+V(P)’
 - 3.3 ‘你+來+V(P)’
 - 3.4 ‘他+來+V(P)’
 - 3.5 ‘人稱代詞+來+V(P)’의 구문의미
4. ‘來’의 의미기능
5. 맺음말

1. 들어가는 글

현대중국어에서 기본 이동동사인 ‘來’는 문장에서 단독술어로 사용될 뿐 아니라 다른 ‘V(P)’와 결합하여 ‘來+V(P)’ 형식으로 사용된다.

(1) 我準備上床睡覺時，你來敲門了。¹⁾

내가 막 침대에 누워 자려고 하고 있을 때, 네가 와서 문을 두드렸다.

(2) 我來求您幫個忙。

* 柳韓大學教 中國비즈니스學科 講師.

1) 본고에 언급된 예문은 모두 북경대학교 현대중국어 當代小說 코퍼스에서 추출한 것이므로 별도 표기는 생략한다.

(http://ccl.pku.edu.cn:8080/ccl_corpus/index.jsp?dir=xiandai)

당신께 도움을 청하러 왔어요.

(3) 我知道怎麼回事。這事我來辦。

제가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요, 이 일은 제가 처리할게요.

(1)에서 '來'와 '敲門'은 순차적으로 발생한 위치이동과 이동 후에 실행한 동작행위를 나타내고, (2)에서 '來'는 '求您幫個忙'이라는 목적행위를 실행하기 위해 위치이동이 발생했음을 나타내고 있다. 두 문장에서 '來'는 모두 위치이동이라는 동작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예문 (3) 역시 (1)(2)와 동일한 형식 '人稱代詞+來+V(P)'가 사용되고 있지만 '來'는 더 이상 위치이동 의미를 나타내지도 않고, 또한 문장이 목적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도 없다. (3)과 같은 문장에서 '來'가 나타내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기존 연구자들의 견해 차이가 존재한다. 본고는 이러한 위치이동의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 '來'가 '人稱代詞', 'V(P)'와 직접 결합하여 구성된 형식인 '人稱代詞+來+V(P)'구문을 주요연구대상으로 그 의미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범위

2.1 기존연구

위치이동의 의미가 없는 '人稱代詞+來+V(P)'구문이 나타내는 의미에 대한 기존연구자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표1> '人稱代詞+來+V(P)' 구문에 대한 견해

연구자	견해
湯廷池(1979)	방향의미를 나타내지 않는 경우 '來'는 제안이나 권유를 표시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呂叔湘(1980)	'어떤 일을 하려고 함'을 나타낸다.

郭春貴(1987)	주어가 1인칭인 경우 '來'는 '적극적인 주동의지'를, 주어가 2인칭인 경우에는 '요청'이나 '권유'의 의미를 나타낸다.
辛承姬(1998)	어떤 일을 하려고 함, 행위자의 주동의지를 나타내며 주동적 어기를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허성도(2002)	추상적 심리적 공간이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부드러운 어기를 나타낸다.
魯曉琨(2006)	정보구조의 측면에서 '來'는 앞의 주어성 성분을 대비초점으로 부각시키는 초점표지로 문장은 '어떤 일을 어느 한 행위자가 하기를 제의'함을 나타낸다.
陳 賢(2007)	'來+V(P)'구문은 화자의 소망, 바람을 나타내며 이때 '來'는 주동어기를 부드럽게 하는 기능을 한다.

이상의 견해를 살펴보면 주장하는 의미가 '人稱代詞+來+V(P)'구문이 나타내는 의미인지 '來'가 나타내는 의미인지에 대한 확실한 구분이 없이 모호하게 논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행위자의 주동의지를 나타내는데 주어의 인칭이 달라지면 나타내는 의미도 달라진다고 주장하는 등 일관성 있는 해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어의 인칭과 행위자 주동의지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제시한 의미와 '來'의 원형의 의미인 '위치이동'의 의미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언급이 없다. 본고는 기존연구의 기초위에 위치이동의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 '人稱代詞+來+V(P)'구문을 주요연구대상으로 '人稱代詞+來+V(P)'구문이 나타내는 의미는 무엇이며, '來'는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인칭과 구문의 의미사이에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2.2 연구대상

위치이동을 나타내지 않는 '人稱代詞+來+V(P)'구문의 의미를 살펴보기 위한 분석자료는 북경대학교 현대중국어 當代小說 코퍼스에서 추출하였다. 당대 소설 코퍼스에서 먼저 '來'가 선행하는 '人稱代詞'와의 사이에 다른 통사성분의

출현 없이 직접 결합하고 뒤에 다시 'V(P)'를 취하고 있는 형식인 '人稱代詞+來+V(P)'구문이 출현한 문장을 검색하였다. 그런 다음 문장이 위치이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와 '對……來說', 'x來x往' 등 고정형식이 출현한 경우를 제외시켰다. 인칭별 분류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2> '人稱代詞+來+V(P)'²⁾구문 人稱代詞別 분류

	我來	你來	他來	我們來	你們來	他們來	咱們來	大家來
人稱代詞+來+V(P)	100	48	29	17	2	0	0	2

'人稱代詞+來+V(P)'구문이 문장에 출현할 때 빈도가 높은 형식들이 보이는데 그 형식별로 다시 분류를 해 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3> 문장형식별 하위분류

	我來	你來	他來	我們來	你們來	他們來	大家來
人稱代詞+來+V(P)	56	34	9	10	0	0	2
讓/叫 ³⁾ +人稱代詞+來+V(P)	23	9	13	5	0	0	0
由+人稱代詞+來+V(P)	5	0	7	2	1	0	0
人稱代詞+來+기타성분 ⁴⁾ +V(P)	16	5	0	0	1	0	0
합 계	100	48	29	17	2	0	2

3. '人稱代詞+來+V(P)'의 의미기능

'人稱代詞+來+V(P)'구문은 공간상에서의 실제적인 위치이동을 나타내지

2)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이하 본문에서 사용된 '人稱代詞+來+V(P)'구문은 모두 위치이동의 의미가 없는 구문만을 가리킨다.

3) '讓/叫'위치에는 유사한 의미를 나타내는 '請', '要', '委託', '推舉' 등도 출현하고 있다.

4) '來'와 'V(P)' 사이에 '幫你', '給你', '替你' 등이 출현한 경우이다.

않을 뿐 아니라 ‘목적’ 의미 또한 나타내지 않는다.⁵⁾ 그렇다면 ‘人稱代詞+來+V(P)’가 나타내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 기존 연구자들의 견해차가 존재함을 앞서 살펴보았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에는 공통점이 존재한다. ‘人稱代詞+來+V(P)’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을 나타내든지 ‘행위자의 주동적 의지’를 나타내든지, ‘상대에 대한 요구’를 나타내든지 상관없이 모두 행위자와 관련이 되는 의미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행위자와 ‘來+V(P)’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人稱代詞+來+V(P)’구문을 살펴본다면 좀 더 포괄적이고 통일성 있는 해석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제시한 현대중국어 당대소설 코퍼스 자료 분석표에서 보여지듯이 ‘人稱代詞+來+V(P)’구문에서 행위자를 나타내는 주어 위치에는 人稱代詞 ‘我, 你, 他, 我們, 你們, 大家’⁶⁾가 출현하고 있다. 우선 각 인칭별로 사용상에 있어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살펴볼 것이다.

3.1 ‘我+來+V(P)’

1인칭 주어 ‘我’가 ‘來+V(P)’와 결합한 ‘我+來+V(P)’가 출현한 문장은 다양한 형식상의 특징을 보였다.

유형1. ‘我+來+V(P)’형식으로 출현한 경우

- (4) 大爺, 你要不嫌棄, 我來做這頓飯吧。
어르신, 괜찮으시다면 이 식사준비는 제가 하겠습니다.
- (5) 我來回答這位女同志的提問。
제가 이 여성동지의 질문에 대답을 하겠습니다.

5) ‘목적’의미가 ‘來’의 의미인지 ‘來+V(P)’구문이 나타내는 의미인지에 대한 논의는 본고의 연구범위를 벗어나므로 다른 논문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6) ‘他們’이 ‘人稱代詞+來+V(P)’구문에 사용된 예는 보이지만 본고의 논의 범위에 해당되는 즉, ‘來’가 위치이동의 의미 없이 사용된 경우는 본고의 분석범위인 당대소설 자료 중에서는 찾을 수 없었다.

(4)(5)에서 ‘來’는 실질적인 위치이동의 의미가 없다. 발화상황에서 ‘做這頓飯’과 ‘回答這位女同志的提問’는 누군가가 실행해야 하는 동작행위인데, 화자가 ‘我+來+V(P)’구문을 사용하여 그 동작행위를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내가’ 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화자가 어떤 동작행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기 자신을 이 동작행위의 실행자로 지정하면서 필연적으로 모종의 주동성과 적극성을 나타내고 있다.

유형2. ‘你+來+V(P)’와 ‘我+來+V(P)’가 대구(對句)형식으로 출현한 경우
 ‘我+來+V(P)’가 ‘你+來+V(P)’와 대구형식을 이루어 출현한다. ‘我+來+V(P)’가 출현한 문장 100개 중 20개가 이러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

(6) 你去開票, 我來發貨, 每人只許買一袋。

너는 영수증을 발급해라, 내가 물건을 내줄테니, 1인당 한 포대씩만 된다.

(7) 媽媽, 你還睡一會, 我來煮稀飯。

엄마 좀 더 주무세요, 제가 죽 끓일게요.

대구형식은 다시 ‘你+去+V(P)’가 사용된 것과 ‘你+V(P)’가 사용된 경우로 세분할 수 있다. 전자는 전형적인 대구법이 사용된 경우로 ‘你’와 ‘我’가 일을 분담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화자는 실행해야 할 여러 가지 동작행위 중 어느 하나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6)에서 ‘開票’와 ‘發貨’라는 행위를 실행함에 있는 너와 내가 분담을 하고, 그 중 ‘發貨’를 내가 책임지고 하겠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你+V(P)’형식과 대구를 이루고 있는 (7)의 경우는 일의 분담은 아니지만 실행되어야 할 ‘煮稀飯’이라는 동작행위는 내가 실행할 테니 상대방은 그 일을 하지 말고 다른 행위 ‘睡’를 하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유형3. ‘讓/叫+我+來+V(P)’형식으로 출현한 경우

'我+來+V(P)' 앞에 '讓/叫'등이 결합한 겹어문 형식은 모두 28개의 예문이 출현하였다.

- (8) 抱歉, 抱歉, 各位別掃了, 這巷子是我們家弄臟的, 讓我來清理。
죄송합니다. 여러분 청소하지 마세요. 이 골목은 저희집에서 어지럽힌 거니까 제가 치울게요.
- (9) 建議這個組叫我來負責……。
이 팀은 제가 맡게 해 주시길 건의합니다.

(8)과 (9)에서는 각각 '讓'과 '叫'가 사용되었지만 모두 '내가 무엇을 하게 허락해 달라'는 의미를 표현하는 것으로 사실상 '讓我來清理'는 '제가 청소를 할게요'를, '叫我來負責'는 '제가 책임을 질게요'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화자는 '讓/叫+我+來+V(P)'구문을 사용하여 자신이 어떤 동작행위를 하겠다는 의지를 청자에게 허락을 구하는 형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유형4. '由+我+來+V(P)'형식으로 출현한 경우

어떤 일이나 동작행위의 행위자를 이끄는 의미가 있는 '由'와 공기하는 형식으로 '由'의 기능 때문에 행위자로서의 화자의 역할이 강조되는 경우이다.

- (10) 這個難題由我來解決。
이 난제는 제가 해결할게요.
- (11) 作為臨時負責人, 這事的主要責任由我來負。
임시 책임자로서 이 일에 대한 주된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由'를 사용하여 동작행위의 실행을 화자인 '我'가 책임져야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由'를 陳曉蕾(2010)는 '책임의미형식표지'라고 하며 책임의미가 없는 동사들도 '我來V(P)'구문에 사용되고 형식표지 '由'의 강화를 받아 문장전체가 책임과 관련된 의미를 나타내게 된다고 하였다.

유형5. '我+來+기타성분+V(P)'형식으로 출현한 경우

'來'와 'V(P)'사이에 '給', '幫', '替'가 출현하여 행위자가 실행하는 동작행위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행위라는 점을 나타내고 있는 경우이다.

(12) 我爸剛買了一壇子'加飯', 我來給您燙酒!

아빠가 얼마 전에 加飯酒 한 단지 사셨는데, 데워다 드릴게요.

(13) 瞧這屋子, 住得下去人麼? 哪天闲着, 我來幫你們收拾收拾。

이 방 좀 봐라, 사람이 살 수 있겠냐? 언제 시간 나면 내가 너희 대신 청소해 줄게.

'給', '幫', '替'는 '來'뒤에 출현하여 행위자가 실행하는 동작행위의 수혜자를 이끌고 있다. (12)에서 화자가 '燙酒' 하는 것은 '您'을 위한 것이고, (13)에서 '收拾收拾'하는 것은 '你們'을 돕는 행위이다. 이처럼 수혜자가 '你'나 '你們'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한 경우만이 수혜자가 '他'였다. 화자는 발화상황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동작행위를 자신이 주동적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그 동작행위의 실행이 청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임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1인칭 주어가 사용된 '我+來+V(P)'구문에서 주어는 화자이자 행위자이다. 화자는 '我+來+V(P)'구문을 사용하여 발화상황에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동작행위를 자신이 주동적으로 실행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화자의 주동적 의지가 표현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발견된다.

(14) 他自己幹不了的事硬要我來幹, 我怎麼會答應。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억지로 나보고 하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하겠어.

(15) 父親繼續說道, 時間會有耐心慢慢地教育你, 用不着我來為你操心。

아버지가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시간이 인내심을 갖고 천천히 너를 가르칠 터이니 내가 너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14)에서 '幹'은 행위자인 화자가 주동적으로 실행하려는 것이 아니라 '他'가 화자에게 억지로 하라고 시키는 동작행위이다. 이러한 동작행위는 당연히 행위자인 화자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我來幹'은 단순히 시킴을 당하는 행위자가 다른 사람이 아닌 '화자자신'이라는 의미만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5)의 경우는 '來' 뒤에 출현하는 동작행위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예문으로 이러한 경우 또한 단지 동작행위를 실행하는 행위자가 화자인 것만을 나타낼 뿐 화자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다. 주목할 만한 점은 (15)에 출현한 동사 '操心'이 심리상태동사라는 점이다. '我+來+V(P)'구문에 출현한 동사는 '挂念', '操心'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 [+동작성][+의지]특징을 가진 자주동작동사⁷⁾가 사용되었다. 그런데 '挂念', '操心'이 출현한 문장은 모두 (15)와 같은 형식으로 출현하고 있는데, 화자의 주동적 의지를 반영하던 '我+來+V(P)'구문이 화자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의미를 나타내는 문맥에 사용되면서 원래는 출현할 수 없었던 심리상태동사가 출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종합해보면 '我+來+V(P)'구문은 '발화상황에서 실행되어야 할 모종의 동작행위를 화자가 그 행위자가 되어 실행할 것임을 발화참여자인 청자에게 알리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由', '讓', '叫'와의 공기나 주어대구문 형식을 취함으로써 행위자를 더욱 강조시키기도 한다. 행위자가 화자 자신이므로 대부분의 경우 '我+來+V(P)'에는 화자의 주동적 의지가 포함되며, '건의, 제안, 선언'을 나타낸다. '건의, 제안, 선언'은 동작행위를 앞으로 실행할 것이라는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므로 문장은 서상법(irrealis)⁸⁾에 해당한다. 이때 '來'를 생략하면 행위자를 부각시키는 구문의 의미가 약화되어 단지 '어느 행위자가 어떤 동작

7) [+동작성][+의지]는 자주동사의 의미자질이다. 자주동사는 자각적인 동작행위, 즉 행위자가 자신이 주체적으로 주관적으로 결정하고 자유롭게 통제할 수 있는 동작행위를 나타내는 동사로 단독으로 명령문을 구성하거나 '來'나 '去' 뒤에 결합하여 명령문을 구성할 수 있다. 비자주동사는 무의식적인 변화나 속성을 나타내는 동사이다. (馬慶株1992:22)

8) Mithun(1999: 173)는 敘實法(realis)은 상황을 실현된 것으로, 즉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는 것이어서 직접적인 지각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敘想法(irrealis)은 상황을 순전히 사고의 영역에 있는 것으로 그래서 상상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으로 묘사한다고 하였다. (임동훈2011:331제인용)

행위를 한다’는 일반적인 서술문으로 ‘건의, 제안, 선언’ 등의 의미를 나타내기 어렵게 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4> ‘我+來+VP’ 구문

통사형식:	S(1인칭단수)	+	來	+	VP(자주동작동사)
의미기능:	화자자신		행위자 부각		실행할 행위
구문의미:	주어인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동작행위를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이 실행할 것임을 알림 (서상법)				

3.2 ‘我們+來+V(P)’

주어위치에 1인칭 복수형인 ‘我們’이 출현한 경우를 살펴보자.

- (16) 王一生, 我們來下一盤?
王一生, 우리 장기나 한 판 둘까?
- (17) 我們來猜個謎語吧。
우리 수수께끼 맞추거나 합시다.
- (18) 現在讓我們來研究研究這顆結晶體。
이제 우리 이 결정체를 좀 연구해 봅시다.

(16)(17)에서 ‘我們’은 화자와 청자가 포함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1인칭 단수형 ‘我’가 출현한 경우에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화자자신’이 어떤 동작행위를 실행하는 행위자임을 나타내던 것과는 달리 1인칭 복수형은 발화에 참여하고 있는 화자와 청자 모두 행위자가 되어 ‘우리 같이 어떤 동작행위를 실행하자’라는 ‘청유’의미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는 ‘我們+來+V(P)’앞에 ‘讓’이 공기하는 (18)과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讓+我們+來+V(P)’형식은 5개가 출현했는데 모두 ‘우리 같이 모종의 동작행위를 실행합시다’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청유’의미를 나타내는 경우 화자

는 동작행위의 실행을 제안하는 주체로서 청자보다 좀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我們'은 이러한 포함식 외에 발화의 참여자 모두를 포함하지 않고 청자를 배제한 화자와 화자가 속한 무리만을 가리키는 배제식으로 사용된 경우도 보인다.

(19) 小波, 找個蔭地歇着吧, 你那份我們來幹。

小波, 그늘에 가서 좀 쉬어, 네 몫은 우리가 할게.

(20) 你只管按他的要求辦就是, 其他由我們來解決。

넌 그 사람 요구대로 하기만 하면 돼,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해결할게.

(19)에서 '我們'은 청자인 '小波'가 배제된 개념으로 사용되어 '화자와 그의 무리'인 '我們'이 '小波'를 위해 어떤 행위를 하겠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20)의 경우 또한 (19)와 마찬가지로 '我們'이 청자를 포함하지 않는 배제식으로 사용되었고, '我們+來+V(P)' 앞에 '由'가 공기한 형식으로 출현하여 '우리가 어떤 일을 책임지겠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문장은 1인칭 단수 대명사가 출현한 경우와 동일하게 일종의 '제안, 선언'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20)의 경우는 행위자를 이끄는 기능을 가진 '由'의 영향으로 행위자가 더욱 강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我們+來+V(P)'형식에는 자주동작동사뿐만 아니라, '想', '猜', '回憶' 같은 심리활동동사도 출현하고 있다. 동사는 중첩형식이 주로 출현하였는데 이는 화자가 청자에게 같이 행동할 것을 요청하는 상황에서 청자가 좀 더 쉽게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도에 의해 선택된 것으로 보인다. 어떤 동작행위를 같이 하자고 '제안'하는 것이므로 모두 서상법이 사용되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5> '我們+來+VP'구문

통사형식:	S(1인칭복수)	+	來	+	VP(자주동작동사)
의미기능:	화자+청자		행위자	부각	실행할 행위
구문의미: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동작행위를 같이 하자고 제안함 (서상법)				

3.3 '你+來+V(P)'

주어위치에 2인칭 단수 '你'가 출현한 경우 두드러지는 형식은 상대방에 대한 호칭이 먼저 출현하고, 그 대상에게 실행하라고 요구하는 동작행위가 제시 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경우이다.

- (21) 陳玲, 你來念這一頁的第四節。
 陳玲, 이번 페이지 제4절을 네가 한 번 읽어 보거라.
- (22) 劉老師, 你來講事情的經過吧。
 劉선생님, 어떻게 된 일인지 선생님께서 말씀해 보세요.

(21)(22)에서 화자는 '陳玲'과 '劉老師'를 먼저 불러 놓고 그들이 실행하기를 바라는 동작행위 '念這一頁的第四節'와 '講事情的經過'를 제시하고 있다. 앞에 출현한 호칭이 가리키는 대상은 후행하는 동작행위의 행위자가 된다. 청자가 한 명일 수도 있고 여러 명일 수도 있는 발화상황에서 화자는 동작행위를 실행할 대상을 먼저 지정하여 행위자의 주의를 환기시킨 후, 그로 하여금 모종의 동작행위를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너'가 실행하라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일종의 '요구, 명령'의미이다.

호칭이 먼저 출현한 형식 외에 '你+來+V(P)'구문의 사용에서 눈에 띄는 형식은 '用不着' 같은 부정형식이 공기하는 경우이다.

- (23) 我用不着你來做大媒, 管好你自個吧。
 내 중매를 네가 서 줄 필요 없거든, 너나 잘 해.

(24) 老實講, 這麼個小戰場用不着你來親自指揮。

사실, 이런 소규모전은 장군께서 직접 지휘하실 필요까지 없어요.

(23)에서 화자는 누군가가 자신에게 ‘做大媒’ 해 주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 동작행위를 청자인 ‘你’가 실행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24)의 경우도 누군가가 ‘指揮’를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화자는 청자가 ‘指揮’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청자인 ‘你’가 뭔가를 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데 바꿔 말하면 화자는 청자에게 어떤 행위를 실행하지 않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你+來’와 ‘V(P)’사이에 ‘給我’, ‘替我’가 출현하여 ‘나를 위해, 나 대신에 어떤 일을 실행해 달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讓/請+你+來+V(P)’의 형식이 출현한 경우 또한 청자가 모종의 동작행위를 실행해 주기를 요구하거나 명령하는 것을 의미한다.

(25) 我想, 他們那兩下子, 肯定不如你, 就想請你來寫寫。

제 생각에는 그들의 솜씨가 분명 당신만 못할 것 같아서 당신께 좀 써 달라고 부탁드리려 합니다.

(26) 我看你是個老實人, 手藝也還說得過去, 我還有點小的活計, 就讓你來做, 工錢當然是從優的。

내가 보니까 넌 성실하고 솜씨도 쓸 만한 것 같네, 일거리가 좀 있는데 네가 해라. 삐는 특별히 후하게 쳐 줄게.

(23)(24)에서는 앞에 화자가 왜 청자에게 모종의 동작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이렇게 이유를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요구를 청자가 좀 더 쉽게 받아들일도록 하기 위한 화자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된다.

1인칭은 단수와 복수 주어 가 출현한 경우 표현하는 의미에 있어 차이를 보였던 것과 달리 2인칭은 단수와 복수 주어 가 동일한 경향을 보인다. 아래의 예에서도 화자가 실행되어야 할 것으로 여기는 동작행위를 청자들이 해 주기

를 ‘요구’하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27) 你們來替我們生孩子吧。

당신들이 우리 대신 아이를 낳아 주세요.

(28) 現在該由你們來集體揭穿他了！

이제 너희가 모두 저 사람의 잘못을 밝힐 차례다.

‘你/你們+來+V(P)’에 출현한 V(P) 역시도 ‘估估’가 출현한 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가 자주동작동사였고 서상법으로 표현되고 있다.

<표6> ‘你/你們+來+VP’ 구문

통사형식:	S(2인칭단수/복수)	+	來	+	VP(자주동작동사)
의미기능:	청자		행위자	부각	실행할 행위
구문의미: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동작행위를 실행하라고 요구, 명령함 (서상법)				

3.4 ‘他+來+V(P)’

‘來’ 앞에 3인칭 단수 ‘他’가 출현한 경우 주로 ‘讓+他+來+V(P)’ 형식과 ‘由+他+來+V(P)’ 형식이 출현하고 있다.

(29) 你讓他來讓我？這輩子他就沒讓過。

그 사람보고 나한테 양보하라고 했다고? 그 사람은 일생 양보라는 걸 해본적이 없는 사람인데.

(30) 會議上需要吳老講話，也是由他來代為宣讀。

회의에서 吳老가 연설해야하는 것도 그가 대독한다.

(29)(30)에서는 ‘讓我’와 ‘代為宣讀’를 실행하는 행위자인 ‘他’가 발화에 참여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9)에서 ‘他’로 하여금 ‘讓我’라는 행위를 하게 시키는 주체는 검어문이 포함된 문장의 주어인 ‘你’이다. (30)같은 경우는

일반 서술문의 형식이 출현하고 있는데 ‘他+來+V(P)’구문이 출현한 대부분의 문장이 서술문이었다고 행위자가 ‘他’인 것만을 부각시킬 뿐 명령, 요구, 제안 등의 의미를 나타내지 않았다.

<표7> ‘他+來+V(P)’ 구문

통사형식: S(3인칭단수) + 來 + VP(자주동작동사) 의미기능: 청자 행위자 부각 실행할 행위 구문의미: 그가 어떤 동작행위의 행위자임을 강조 (서상법)

3.5 ‘人稱代詞+來+V(P)’의 구문의미

앞서 살펴보았듯이 ‘人稱代詞+來+V(P)’가 표현하는 의미는 그 구성성분인 ‘人稱代詞’, ‘來’, ‘V(P)’ 의미의 단순조합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人稱代詞+來+V(P)’가 하나의 구문으로서 각 구성성분의 의미결합과는 독립적으로 완전한 하나의 의미를 표현하기 때문이다.⁹⁾

그렇다면 구문으로서 ‘人稱代詞+來+V(P)’가 표현하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우선 앞서 분석했던 인칭별 결과를 다시 살펴보자.

1인칭 단수 ‘我’가 출현한 ‘我+來+V(P)’구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동작행위를 화자 자신이 실행할 것임을 알리는 것으로 ‘건의, 제안, 선언’의 의미를 나타낸다.

1인칭 복수 ‘我們’이 출현한 ‘我們+來+V(P)’구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동작행위를 같이 하자고 제안하는 의미를 나타낸다.

9) Goldberg(1994)는 구문을 ‘특정동사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형식과 의미의 대응물’로 정의하고, 구문의 문법적 단위 설정을 주장하였다. 이에 따르면 구문이란 문장 안의 단어와는 독립적으로 스스로 의미를 가진 구조이다. 따라서 구문은 단순히 어휘항목의 결합체, 그 이상의 언어단위로서 어휘항목과는 별도로 문장의 의미를 결정하는 중요한 단위이다. (정주리2006:207)

2인칭 ‘你/你們’이 출현한 ‘你/你們+來+V(P)’구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동작행위를 청자인 ‘你/你們’이 실행하기를 요구하거나 명령을 하는 의미를 나타낸다.

3인칭 단수 ‘他’가 출현한 ‘他+來+V(P)’구문은 ‘他’가 실행될 어떤 동작행위의 행위자임을 부각시키는 의미를 나타낸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人稱代詞+來+V(P)’구문은 ‘실현되어야 할 동작행위를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주어위치에 출현한 행위자가 책임지고 실행한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그 기본기능이라 할 수 있다.

구문으로서의 고정적인 의미를 유지하기 위해 ‘人稱代詞+來+V(P)’구문은 각 구성성분에 대한 제약을 하게 된다. 먼저 행위자가 어떤 동작행위를 할 것임을 나타내므로 구문에 사용된 ‘V(P)’는 실행가능한 동작동사여야 한다. 이 점은 앞선 분석에서 이미 증명되었다. 일부 심리동사의 출현은 동작성이 없는 심리동사가 ‘人稱代詞+來+V(P)’ 구문에 사용되어 그러한 심리활동을 행위자가 하다는 의미를 나타내면서 사용 가능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주어위치에 출현하는 인칭에 따라 표현하는 의미기능이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人稱代詞+來+V(P)’구문이 인칭의 사용에 제한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에서 살펴본 ‘人稱代詞+來+V(P)’ 구문에 각각의 인칭이 출현했을 경우 구문이 나타내는 의미, 양상, 문장유형을 정리해 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8> ‘人稱代詞+來+V(P)’구문

행 위 자	我	我們	你/你們	他
구문의미	건의, 제안	권유	요구, 명령	행위자강조
양 상	서상법	서상법	서상법	서상법
문장유형	의지	청유	명령	서술

4. 來의 의미기능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人稱代詞+來+V(P)’구문은 ‘실현되어야 할 동작행위를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주어위치에 출현한 행위자가 책임지고 실행한다’는 의미를 표현한다. 그렇다면 ‘人稱代詞+來+V(P)’에서 ‘來’는 어떠한 의미기능을 하는가. 먼저 ‘來’의 사용유무에 따른 의미 비교를 해보자.

- (31) a. 你睡午覺吧, 我看孩子。
 넌 낮잠이나 자, 난 애나 볼 테니.
 b. 你睡午覺吧, 我來看孩子。
 넌 낮잠 좀 자, 애는 내가 볼게.
- (32) a. 陳玲, 你念這一頁的第四節。
 陳玲, 이번 페이지 제4절을 읽어라.
 b. 陳玲, 你來念這一頁的第四節。
 陳玲, 이번 페이지 제4절을 네가 한 번 읽어 보거라.

(31a)에서 화자는 ‘나는 看孩子라는 동작행위를 한다’는 단순사실을 청자에게 말하고 있다. 반면 (31b)에서는 ‘看孩子’라는 동작행위가 화자와 청자 모두와 관련이 있는 동작행위이며, 화자가 생각하기에 발화상황에서 누군가가 그 동작행위를 실행할 필요가 있는데 그 실행을 화자 자신이 하겠으니 청자는 다른 행위를 하라는 일종의 ‘제안’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동작행위에 대한 화자가 주동적 실행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32a)에서는 청자에게 ‘念這一頁的第四節’라는 동작행위를 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을 뿐 화자, 청자, 동작행위 사이의 관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32b)에서는 발화상황에서 화자가 실행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동작행위 ‘念這一頁的第四節’를 다른 누군가가 아닌 청자가 실행해주기를 바란다는 화자의 심리가 반영된다. ‘念這一頁的第四節’는 행위자인 청자의 의지에 의해 실행된다고기보다는 화자의 바람

에 의해 실행이 기대되는 동작행위이다. 이와 같이 '來'가 사용되지 않으면 '人稱代詞+V(P)'는 '행위자가 어떤 동작행위를 한다'라는 단순사실만을 나타낼 뿐이다. '來'는 '人稱代詞'와 'V(P)' 사이에 출현하여 화자가 발화상황에서 실행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동작행위의 행위자가 바로 앞의 '人稱代詞'임을 표지한다. '人稱代詞'와 화자의 일치여부에 따라 화자가 직접 실행하겠다는 주동적 의지를 나타내거나 청자가 적극적으로 실행해 주기를 바라는 화자의 의도를 표현하게 되는 것이다.

'來'가 어떻게 이러한 기능을 하게 된 것인가. '人稱代詞+來+V(P)'구문에서 '來'는 더 이상 공간상의 위치이동을 나타내는 이동동사로서 기능을 하지 않는다. 위치이동동사에서 문법적 기능을 하는 성분으로 문법화가 된 것이다. 위치이동동사로서 '來'는 기준점을 향해 다가가는 위치이동을 나타내고, 화자의 위치가 무표적 기준점이 된다. 이러한 '來'가 다양한 통사환경에 출현하면서 의미의 변화를 겪게 되고 점차 위치이동의미를 잃게 되어 문법적 기능을 하는 성분으로 문법화되게 된다.

'來'가 'V(P)'와 결합하여 사용되면서 '來'의 의미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다. '來+V(P)'는 '위치이동이 발생한 후 그 장소에서 동작행위를 실행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이때 화자는 'V(P)'가 실행되는 장소를 기준점으로 삼아 자신의 시점을 그곳에 놓고 있다.

'來+V(P)' 앞에 다시 '人稱代詞'가 직접 결합하여 '人稱代詞+來+V(P)'형식으로 사용될 때는 '來'가 여전히 위치이동의미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위치이동의 의미가 없이 사용되기도 한다. 바로 본고의 연구대상인 '人稱代詞+來+V(P)'구문에 사용된 경우가 그러하다.

위치이동의 의미가 있는 '來'가 사용된 경우 구문은 주어위치의 행위자가 'V(P)'를 실행할 공간으로 다가와서 동작행위를 실행함을 나타낸다. 이 때 화자는 기준점을 동작행위가 실행될 위치에 두고 있다. 반면 '來'가 위치이동의미 없이 사용된 '人稱代詞+來+V(P)'구문은 공간상에서의 기준점으로서의 접근을 표현할 수 없다. 그럼에도 '來'가 사용될 수 있는 것은 공간영역에서 추상영역

으로의 영역전환이 이루어져서, 공간상에서 행위자가 동작행위를 실행할 장소로 다가감을 표현하는 것과 같이, 추상영역에서 행위자가 동작행위의 실현을 위해 그 동작행위가 이루어지는 심리공간으로 심리적 접근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추상영역에서 화자는 동작행위가 실행될 공간을 자신의 심리공간으로, 즉 심리적 이동의 기준점으로 삼고 있다. ‘來’의 공간적 기준점을 향하는 ‘방향성’이 심리공간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어 동작행위의 실현을 위해 화자의 심리공간으로 향하는 ‘심리적방향성’으로 나타난다. 행위자와 동작행위 사이의 심리적 거리 좁힘은 화자의 동작행위 달성에 대한 의지를 반영한다. 그러므로 행위자가 화자자신인 경우 동작행위 실행에 대한 화자의 주동적 적극적 의지가 가장 잘 반영 될 수 있다. ‘人稱代詞+來+V(P)’구문에 1인칭 주어의 용례가 가장 많은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 2인칭 주어가 사용된 경우에는 행위자와 동작행위 실행사이의 거리 좁힘은 화자와 청자사이의 심리적 거리가 가까워짐을 의미하게 되고, 화자가 실행되기 바라는 동작행위를 청자가 적극적으로 실행하기를 요구하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게 된 것이다.

‘人稱代詞+來+V(P)’구문에서 ‘來’는 화자의 주관적 태도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후행하는 ‘V(P)’는 화자가 자신의 심리공간에서 실현되어야 할 것으로 여기는 동작행위이고 선행하는 ‘人稱代詞’가 바로 그 동작행위를 실행하기 위해 화자의 심리공간으로 다가오는 행위자임을 나타낸다. 즉 화자와 행위자의 관계를 나타내는 성분으로 일종의 ‘행위자표지’라 할 수 있다. 때문에 ‘來’가 출현하지 않는 경우, 구문이 나타내는 명제의의미는 변화가 없지만, ‘人稱代詞’와 ‘V(P)’의 관계가 행위자와 행위자가 실행하는 동작행위라는 단순한 관계만을 나타낼 뿐, ‘V(P)’가 화자가 발화상황에서 실행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동작행위이고, 그 동작행위의 실행자가 바로 앞의 ‘人稱代詞’임을 강조하는 의미를 표현하지 못하는 화용상의 차이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5. 맺음말

본고에서는 위치이동을 나타내지 않는 ‘人稱代詞+來+V(P)’구문을 주요언 구대상으로 코퍼스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人稱代詞+來+V(P)’구문은 기본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동작행위를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주어위치에 출현한 행위자가 책임지고 실행한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주어위치에 출현하는 인칭대사에 따라 1인칭 단수 주어 구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동작행위를 화자 자신이 실행할 것임을 알리는 ‘건의’, ‘제안’, ‘선언’의미를, 1인칭 복수 주어 구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동작행위를 같이 하자고 ‘제안’하는 의미를, 2인칭 주어 구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동작행위를 청자가 실행하기를 ‘요구’하거나 ‘명령’ 하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았다. 3인칭 구문은 1인칭이나 2인칭 주어가 출현한 경우와는 다르게 ‘他’가 실행될 어떤 동작행위의 행위자임을 부각시키는 의미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구문에서 ‘來’는 후행하는 V(P)는 화자가 자신의 심리공간에서 실현되어야 할 것으로 여기는 동작행위이고, 선행하는 ‘人稱代詞’가 바로 그 동작행위를 실행하는 행위자임을 나타내는 ‘행위자표지’로, 화자의 주관적 태도를 반영하고, 화자와 행위자의 관계를 나타내는 성분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來’가 출현여부는 구문의 화용상의 차이를 만들게 된다.

< 參考文獻 >

- 박지혜(2009), 《‘來/去+VP’ 구문에 나오는 ‘來’와 ‘去’의 의미기능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허성도(2002), <現代漢語의 ‘來/去’ 구문 연구>, 《중국어언어연구》, 15집.
- 陳曉蕾(2010), <“人稱代詞+來2+V(P)”構式語義分析——以“我來2V(P)”爲例>, 《雲南

師範大學學報(對外漢語教學與研究版)》(3).

陳賢(2007), 《現代漢語動詞“來、去”的語義研究》, 復旦大學博士學位論文.

東琰(2003), <關於“去+V+N”和“來+V+N”式狀中結構>, 《蘇州科技學院學報》, 第2期.

郭春貴(1987), <試論連謂結構“來/去+VP”中的虛化動詞“來/去”>, 《第二屆國際漢語教學討論會論文選》.

魯曉琨(2006), <焦點標記“來”>, 《世界漢語教學》, 第2期.

毛文星(2010), <“我來念課文”及其課堂教學>, 《現代語文(語言研究版)》(6).

湯廷池(1979), <“來”與“去”的意義與用法>, 《國語語法研究論集》, 301-320, 臺北, 學生書局.

唐秀偉(2010), <動詞前“來/去”考辨>, 《北方論叢》(4).

王培敏(2010), <“來+VP”的語義特征與演變機制>, 《湖北經濟學院學報》(3).

王鳳蘭(2008), <論現代漢語表示目的的“來”>, 《學術交流》(5).

王國栓(2005), <“來+VP”“VP+來”兩格式中的“來”>, 《南開語言學刊》(1).

相原真莉子(2010), <失去位移義“來”的核心功能>, 《世界漢語教學》(1).

辛承姬(1998), <連動結構中的“來”>, 《語言研究》(2).

蕭惠帆(2004), 《從語法到教學論詞彙“來/去”的趨向和情態》, 國立臺灣師範大學華語文教學研究所 碩士學位論文.

張瑞穎(2007), 《助詞“來/去”的語法化歷程》, 山西大學 碩士學位論文.

張全生(2009), 《現代漢語焦點結構研究》, 南開大學 碩士學位論文.

鄭東珍(2008), <論現代漢語“來V”和“去V”的不對稱性>, 《泰安教育學院學報(岱宗學刊)》, 第1期.

Chia-chien Hsu(2008), *The Syntax of Non-deictic Versions of Lai ‘come’ and Qu ‘go’ in Mandarin*, MA Thesis Graduate Institute of Linguistics National Chung Cheng University.

Shen yaming(1996), The semantics of the Chinese verb ‘come’, *Cognitive Linguistics Research*, 6. Berlin: Mouton de Gruyter. 507-540.

Xing Zhiqun, Janet(2003), Grammaticalization of Verbs in Mandarin Chinese. *Journal of Chinese Linguistics*. Vol 31:1: 101-143.

< 中文提要 >

本文以不表示位移義的“人稱代詞+來+V(P)”構式為研究對象，通過對語料的考察，探討了“人稱代詞+來+V(P)”構式的構式語義。本文認為“人稱代詞+來+V(P)”具有構式地位并且表達一個完整的構式語義。其構式語義為表達說話者認為需要實現的一個動作行為由出現在主語位置的實施者來負責進行。“來”用在“人稱代詞+來+V(P)”構式表達說話者的主觀態度，標記其前面的人稱代詞就是實現“V(P)”表示的動作行為的實施者。它是反映說話者和實施者之間關係的“實施者標記”。在構式整體語義中，“來”是起關鍵作用的成分。

關鍵詞：來，構式意義，參照點轉移，實施者標記，語法化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1.9.30	2011.11.7	2011.11.17	2011.11.23	2011.11.30